

계몽의 거리, 코리엔테스

우고 칼리가리스·라우라 리나레스

예술적 영감을 어디에서 찾을지 항상 고민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은 코리엔테스 거리의 앨범 페이지를 들춰보고 또 들춰본다. 코리엔테스 거리는 우리의 거리이며, 그럴 수만 있다면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 거리이다. 하지만 우리를 그려내는 것은 오히려 거리이며, 코리엔테스 거리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어느 때 한 황량한 섬으로 우리를 데려가서는 (우리는 짐을 쌀 필요도 없다) 과거에 도시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줄 것이다. 코리엔테스 거리는 계몽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이며 당연히 자신의 상징물, 즉 오벨리스크를 갖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오벨리스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나 땅에서 솟아났다고 믿으며, 혹은 후안 데 가라이(Juan de Garay)¹⁾가 바다를 통해 카라벨선에 실어와 작은 크기로 해체한 뒤 배에서 끄집어내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벨리스크는 단지 1936년부터 누에베 데 홀리오(9 de julio) 대로(大路) 꼭대기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는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적의 공격을 알려야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200개의 철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 계단에는 매 8미터마다 층계참이 총 7개 있고, 6미터 위에 하나가 더 있다. 오벨리스크의 높이는 67.5미터인데, 작은 창이 4개 있고, 거기에 얽힌 탱고 곡도 하나 있다. 곡 제목이 바로 <오벨리스크>(El obelisco)이며, 아메리코 엘레시오

1)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처음으로 식민지를 건설했다.



왼쪽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문장(紋章)성령을 의미하는 비둘기의 인도를 받아 배 두 척이 라플라타 강을 항해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첫 번째 창건자인 후안 데 가라이의 배와 두 번째 창건자인 페드로 데 멘도사의 배이다

데 그레코가 작곡하고, 리토 바야르도가 가사를 쓴 그 곡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벨리스크가 항상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래 오벨리스크의 자리에 무엇이 있었을까? 최초로 있었던 것은 니콜라스 데 바리 교회로, 이는 돈 도밍고 아카수소가 계획하여 1729년 매우 단순히 지었다가 1767년 프란시스코 데 아라우호가 재건했다. 그래서 코리엔테스 거리는 산 니콜라스 거리, 혹은 산 니콜라스의 옆구리를 지나가는 거리라고 불렸다. 18세기에 그곳은 그저 이웃 부인네들이 빨래하러 강으로 가려고 지나다니던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교회가 있던 그곳에 서커스공연장이 들어섰다. 공연장 이름은 이포드로메(Hippodrome)였으며, 오늘날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바로 그 터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커스는 1859년에 창설되었으며, 19세기 중반 부에노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랜드마크 오벨리스크

아이레스 사람들은 50센타보의 입장료를 내고 진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누렸다. 믿든 안 믿든 이 진귀한 것들 사이에는 사람도 끼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원주민’ (poblaciones originarias)이 아니라, 단순하고 거칠게 ‘인디오’ 라고 불렀다.

‘인디오 구경하러 오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을 즐겁게 하고 끌어 모으던 수치스런 문구였다. 당시의 한 전단지에는 이런 식으로 공연을 묘사하고 있다.

“이포드로메 서커스에 전시된 인디오 무리는 인구가 줄어든 차마코코와 치리구아노 부족의 대표들로서, 탐험가 카터 씨가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이 도시로 데려왔습니다. 이 인디오들은 진보하는 문명에 아직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옷도 걸치지 않습니다. 사냥과 낚시로 먹고 살지만 많은 이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매일 강에 뛰어들어 목욕을 하는 것일 정도로 매우 청결합니다. 여자들은

카를로스 펠레그리니

누에베 데 홀리오 대로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다. 도로는 1937년 150일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한 가운데의 다섯 블록을 부수며 상당히 빨리 만들어졌다. 그렇게 도시는 하루아침에, 또 영원히 바뀌었다. 누에베 데 홀리오 대로는 너비는 110미터인데, 평행하게 나 있는 두 도로의 너비 30미터를 합치면 140미터가 된다. 대로와 평행하게 달리고 있는 두 도로의 명칭은 각각 세리토 거리와 카를로스 펠레그리니 거리이다. 세리토 거리는 리바다비아 거리 이후에는 리마 거리가 되고, 카를로스 펠레그리니 거리는 베르나르도 데 이리고엔 거리가 된다.

‘엘그링고’ 라는 별명을 가진 펠레그리니(1846~1906)는 1890년에서 1892년까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고, 여성 참정권과 보통선거를 추진했다. 또한 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1883년 펠레그리니는 자키 클럽을 세워, 그곳을 지배층의 행동과 태도를 세련되게 해줄 문화, 사교 센터로 만들고자 했으며, 1887년부터 그의 이름을 딴 ‘카를로스 펠레그리니 경마대회’가 열리기 시작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중요한 경마 대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팔레르모에서 경기를 하다 이후에는 산이스드로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은유적으로는 카를로스 펠레그리니 자신이 매일 누에베 데 홀리오 거리의 동쪽 길을 달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것은 펠레그리니의 큰 승리이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의 행동을 세련되게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정치인들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매우 신중합니다. 충분한 연애기간을 가진 뒤 며칠이나 지속되는 결혼식을 치르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든 부족은 자신의 부족장을 두고 있으며, 그들은 총통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족장은 고고한 우두머리로서 충고자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치료사의 역할도 합니다.

문명의 진보가 이러한 원시적인 놀이를 외면해버리자(예를 들어, 전 시되었던 그 인디오들은 우리에게 갇혀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강으로 뛰어

2) 누에베 데 홀리오 대로의 일부를 이루며 동쪽으로 평행하게 난 길의 명칭이 카를로스 펠레그리니라는 의미이다.



코리엔테스 가의 마구(馬具) 상점

들 수 없었다) 이포드로메는 포스터에 가족단위로 즐길만한 볼거리를 집어넣었고, 광대 프랑크 브라운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프랑크 브라운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옛 명성과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이포드로메는 두 개의 큰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이는 곡예사와 광대들이었다. 곡예사들은 종종 말을 타고 묘기를 선보였다. 균형유지하는 묘기를 선보이는 세 사람이 말 등에 탄 채 그 위에 올라탄 두 사람을 받쳤고, 마지막 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위로 올라가 인간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장식하면 관객들은 경탄하고 말은 마지막으로 격하게 숨을 내뿜는다.

광대들 중에서는 프랑크 브라운의 존재가 대단했으며, 그는 관중석으로 초콜릿 바를 던지며 자신의 공연을 마쳤다. 소년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나한테 던져요, 플론 블론, 나한테 던지라고요.” 어른들도 매우 브라

운을 좋아했다. 브라운의 고정 관객들 가운데는 니카라과 시인 루벤 다리오, 작가 로베르토 파이로, 대통령 훌리오 로카, 카를로스 펠레그리니, 그리고 사르미엔토도 있었다. 브라운은 해저에서 문어한테 공격받는 시늉을 할 수도 있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와 희극의 긴 구절들도 암송할 수 있었던 배우이자 마임 배우였다. 브라운은 1858년 9월 6일 영국 브라이튼에서 태어났고, 가족의 전통을 잇기 위해 광대가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188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을 때 브라운은 다른 항구와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마지막 항구가 되었다. 사람들은 브라운이 떠나지 못하게 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제2의 조국이 되었다. 1924년까지 엄청난 성공을 거둔 브라운은, 이후 아내와 함께 콜레히알레스 지구(엔리케 마르티네스 825번가)에 정착했다. 1943년에 죽은 뒤 영국인 공동묘지에 묻혔으며, 바호 플로레스의 페리토 모레노 대로와 마리아노 아코스타 대로 근처에 그의 이름을 딴 작은 거리가 하나 있다.

리베르타드 거리

리베르타드 거리는 개통하고 얼마되지 않아 시계와 보석 가게들로 가득 찼다. 리베르타드 거리는 코리엔테스 거리를 가로질러 라바예 거리에 이르는 블록까지 불법적인 물건 거래가 이뤄지는데, 법원이 밀집한 지역 바로 뒤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라디오와 전축들이 팔린다. 그곳이 끝나면 리베르타드 거리는 공연예술 지구가 되어 투쿠만 거리 모퉁이와 만나는 곳에 콜론 극장, 코르도바 거리에 세르반테스 극장, 마르셀로 T. 데 알베아르 거리에 콜리세오 극장이 자리한다. 산타페 거리를 가로질러 엘 바호까지의 지역은 귀족적인 분위기를 띤다. 그곳은 리베르타드 거리 중에서도 신분상승을 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다면 브라운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아내는 서커스의 곡마사로 유명한 로시타 데 라 플라타였다.

로시타는 꽃가게 주인이었는데 한 영국인 기업가가 우연히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았다. 영국인은 로시타를 런던의 코벤트 가든에 데려갔고, 월급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곡마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다. 로시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서 포데스타 가족의 서커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재치, 경박함(아마도 직업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각선미로 인해 로시타는 치명적인 매력의 곡마사로 변신했다. 로시타는 유명한 페페 포데스타의 동생인 안토니오 포데스타와 결혼했고, 격정적인 시작은 이혼으로 끝을 맺었다. 그런 뒤 프랑크 브라운과 살기 시작했다.

댄디

댄디여,
 자신을 그렇게 꾸미는 대신
 네 늙은 어머니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봐
 어머니의 고통을
 작업장에 있는 네 불쌍한 누이를
 누이는 온전한 사랑으로 삶을 희생하지
 밤이면 누이의 영혼은 어머니의 영혼을 염려하며 병들고
 그 둘은 하나가 되어 고통을 받지
 하지만 어느 좋은 날 네 머리에 눈이 내리면
 넌 누이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게 될 거야

— 〈댄디〉(1928): 루시오 데마레 작곡. 아구스틴 이루스타, 로베르토 푸가코스 작사.

브라운은 댄디였고, 신사였다. 세련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으로 생기를 잃지 않는 한 집 안에서 재치 있게 로시타의 불길을 조절할 수 있었고, 그 불길이 집의 굴뚝을 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다. 라울 곤살레스 투논의 시는 수십 년 동안 코리엔테스 거리를 주름잡았던 브라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속일 수 있는지 잘 봐
 다양한 얼굴표정을 짓고 너를 흉내내면서
 시미,³⁾ 탕고, 사마쿠에카를⁴⁾ 추며
 이포드로메를 장악하는 것을 잘 보라고
 한 아이를 웃게 만들기 위해, 그것은 정말 고귀한 임무지,
 나는 내 영혼을 기꺼이 딸랑이로 만들 것이고,
 내 열정을 큰 칼로,
 내 시적 재능을 광대짓으로,
 내 심장을 돌덩이로 만들 것이네
 프랑크 브라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인이자 내 세대의 웃음을 책임진 사람
 나는 당신이 던진 초콜릿을 맛보았고
 공중그네와 도약판에 있는 당신을 보았고
 당신은 화려한 도전들, 유연한 웃음과 기술적인 도약을 선사한
 환상적인 공중묘기의 제왕
 당신은 나의 주기도문이었다고,
 내가 읽어본 최고의 책,
 나의 스승이자 광대였다고 나는 말하네

3) 1920년대에 유행한 미국 기원의 춤.

4) 페루의 민속 춤.

알베르토 프레비시

아르헨티나 투쿠만 출신의 이 건축가가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엄청난 비판이 일었다. 엔지니어 베니토 카라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오벨리스크는 역사적, 예술적 의미,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혹은 기념하는 의미를 가진다. 오벨리스크는 특정한 사실, 승리, 문명, 이상을 기념하는 것이다. 어쨌든 무엇에 대한 것이다. 미래에 세워질,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에 건축될 오벨리스크의 문제는 표상하는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다. 뭔가를 상징화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 아무 것도, 정말 아무 것도 없다.”

건축가 알레한드로 크리스토퍼슨은 다음과 같은 말로 오벨리스크 건축을 비판했다. “기념비적인 레푸블리카 광장에서 두드러지는 장소를 차지하기에는 부적합한, 시멘트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알레한드로 부스티요는 이렇게 덧붙인다. “돌로 감싼 저 시멘트 상자보다는 콘크리트 기념비가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텅 빈 감정을 드러내는 상징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자 프레비시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이것은 가짜 돌로 만들어진 도시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만연한 이상한 질투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질투심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형편없는 건축물을 만들어 온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면 더욱 이상하다.” 시간이 지난 지금 오벨리스크의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조건들을 생각해보면, 비판자들보다는 프레비시가 더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듯하다.

코리엔테스 거리는 원래 좁은 도로였으나 확장공사를 하였다. 도로를 넓히기 위해 교회와 서커스공연장은 잔인한 곡괭이질로 무너져 내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국기를 계양한 교회와 프랑크 브라운을 빛내준 바로 그 서커스공연장 말이다. 그 어떤 것도 시간을 비껴가지는 못했고, 옛 영광은 찌꺼기와 기억을 남겼다(이후의 오데온 극장과 페페 포데스타, 즉 ‘페피노 엘 88’ 이⁵⁾ <후안 모레이라>를⁶⁾ 처음으로 선보인 폴리테아마 극장도 마찬가지였다).

5) 페페 포데스타가 만들어낸 광대 인물.

6) 아르헨티나 작가 에두아르도 구티에레스가 자신의 소설 『후안 모레이라』를 서커스를 위한 동명의 미니드라마로 각색했고, 1886년 페페 포데스타가 거기에 대사를 넣어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공연해온 전설적인 작품.

코리엔테스 거리 확장 계획은 1931년에 시작되어 1936년에 끝났다. 건축가 알베르토 프레비시가 기획한 오벨리스크는 1936년 5월 23일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바로 그때를 계몽의 거리 현대사가 시작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리엔테스 거리는 매우 길게 뻗어 있어, 너비가 얼마라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다. 통념적으로 코리엔테스 거리라고 하면 에스메랄다 거리에서 카야오 거리까지의 구간을 떠올리며, 거기에 축이자 중심부인 오벨리스크가 있고, 극장, 피자가게, 책방, 음반점 등이 늘어서 있다.

특히 책은 필수적이어서, 책이 없는 계몽의 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도시가 막 만들어지던 때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미래의 청사진, 도시에 도착한 수많은 이민자들의 물결(이탈리아나 스페인 계의 극장주들이나 온세 거리의 한국인들과 유대인들, 비야 크레스포의 시리아, 아를메니아, 리비아, 유대인들을 잇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래 물(라플라타 강변의 코리엔테스 거리)에서 태어나 무덤(라차카리타 구역)으로 가는⁷⁾ 인간에 대한 비유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하지만 책이 없다면 계몽의 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코리엔테스 거리 중에서도 특정 구역에는 책방이 죽 늘어서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다른 거리에 더 나은 책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고, 자극을 주지도 않으며, 자정 이후에 문을 열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놀랄만한 아이템이 먼지를 뒤집어쓴 책장 사이에서,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튀어나오기란 더욱 불가능하다. 『장미의 이름』 서문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자신이 그렇게 책을 찾아 헤매다가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고백한다.

에코의 소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 작품의 기원에 대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나는 멜크 수도원의 아드소 이야기의

7) 코리엔테스 거리는 라플라타 강변에서 시작되어 라차카리타 공동묘지에서 끝나는 거리임.

극장

첫 번째 극장의 이름은 콜리세오였다. 1804년 커피숍 주인 라몬 아이그나세와 희극배우 호세 스페시알리가 그 극장을 만들었으며, 오늘날에는 레콩키스타 거리와 페론 거리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다. 오케스트라 감독은 블라스 파레라였는데, 아르헨티나 국가를 작곡한 사람이다. 1806년 5월 24일 밤, 부왕 소브레몬테가 박스석에 앉아서 레안드로 페르난데스 데 모라틴의 연극 〈소녀들의 '예'〉를 보고 있었을 때, 산티아고 데 리니에르스는 영국인들이 침공했다고 전해주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 이 순간 사실과 픽션이 뒤섞인다. 소브레몬테는 양측의 분쟁상황을 머릿속에서 재빨리 계산한 뒤, 코르도바로 신속히 도망갔다고 전해진다.

기원을 계속 추적하고 있을 테지만, 1970년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리엔테스 거리의 오래된 작은 서점을 뒤적이다 밀로 테메스바르가 쓴 소설자의 스페인어 버전을 발견했다.” 라고 설명한다.

에르난데스 서점은 코리엔테스 거리의 큰 서점들을 이루는 옛 세대의 명맥을 유지하는 상징이다. 현재의 체인점은 서점 창업자인 다미안 카를로스 에르난데스(Damián Carlos Hernández)의 성을 딴 것이다. 에르난데스는 출판계의 영웅이다. 금지된 책을 판다는 이유로 온가니아 장군은⁸⁾ 에르난데스를 투옥했고, 비텔라 장군은⁹⁾ 서점을 폐쇄했는데, 이 두 장군이 만일 독서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이었다면 나쁜 짓을 조금은 덜 했을 것이다. 에르난데스는 민주화가 된 1983년에 다시 서점을 열었고, 4년 후인 1987년에 죽었다. 이후 부인이 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코리엔테스 거리의 살아있는 또 다른 유명인사는 알베르토 킵니스(Alberto Kipnis)이지만 그의 영역은 책이 아니라 영화다. 킵니스는 1955년에 2류 극장이던 엘 로레인의 임시 대표원이었는데, 영화관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사장의 부탁을 받고 스웨덴 감독인 잉마르 베리만과 스요르베

8) 1966-1970년 사이 아르헨티나를 실질적으로 통치한 장군.

9) 1976-1981년까지 아르헨티나를 통치한 독재자.



코리엔테스가의 한 서점

르, 체코 감독인 프란티šek 블라실과 밀로스 포먼, 베라 시틸로바의 대담한 작품들, 폴란드 감독인 폴란스키의 초창기 작품과 자누시의 영화, 브라질의 글라우버 로샤의 작품을 처음으로 상영했다. 1960년대에 그런 영화관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영화관 옆에 있던 바 ‘라파스’의¹⁰⁾ 탁자들 역시 점점 더 예술과 정치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 로레인과 같은 예술 영화관이 늘어난 뒤(엘 로이레, 엘 로수아르, 엘 로랑쥐 영화관이 엘 로레인의 뒤를 이은 영화관들이었다) 몇 십년간의 암흑기를 거치고 21세기 초가 되어서야 킵니스는 잔해 속에서 다시 예술영화를 부활시켰다. 이번에는 좀 더 수줍은 방식으로, 코리엔테스 거리와 디아고날 노르테의 지하층 공간에서 옛 영광을 다시 살려냈다.

아르헨티나 여러 지방 가운데서도 코리엔테스 주(州)가 독립의 대의

10) 1944년에 문을 연 뒤 60년대와 70년대 중반 사이 지식인, 예술가들이 모이던 장소.

에 첫 번째로 동참하였기 때문에 1822년부터 코리엔테스 거리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소설가 레오폴도 마레찰(Leopoldo Marechal)은 『코리엔테스 거리의 역사』에서 이 거리가 한때는 영국인들의 침공에 반대한 영웅적인 인물 호세 산토스 인차우레기의 이름으로 불린 적도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애국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은 도시의 지도에서 가능한 한 모든 스페인 식민자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호세 산토스 인차우레기는 스페인 사람이었고, 그런 분위기속에서는 그의 이름은 후손들에게는 불운이었으며, 그렇게 긴 이름을 가지고 탱고 가사를 짓지 않아도 된 시인과 작사가들에게는 경탄할만한 행운이었다. ‘코리엔테스 거리와 에스메랄다 거리’ 같은 탱고 곡들은 원래 이름대로라면 ‘호세 산토스 인차우레기 거리와 에스메랄다 거리’와 같은 이름으로 불렸을 테고, 그랬다면 아무도 곡명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레오폴도 마레찰

철학자 사무엘 테슬러는 적대자들이 비야 크레스포에서 퍼트린 것처럼 혼제 청어를 잘못 먹고 죽은 것이 아니다. 피타고라스처럼 잠두(蠶豆) 발에서 죽었다는 전설도, 아르메니아인으로서 정통 제자가 아니었던 케르비키안이 날조한 것이다. 케르비키안은 구루차가 거리에 있는 ‘이스키르 카페’에서 주방허드렛일을 했는데, 놀랄 정도로 우둔해서 결코 테슬러를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테슬러의 철학의 요체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확실하고 또 가장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무엘 테슬러가 이미 위대한 발견들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지만 자신의 놀라운 덕목을 조심스럽게 발휘한 덕분에 마치 라크로스 전차에서 내리는 행위처럼 쉽게 이 세상을 놀래켰다는 것이다.

— 레오폴도 마레찰의 소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담』에서 발췌. 소설은 『울리시즈』와 유사하며 항구 동네인 비야 프레스코의 모습을 묘사한다. 마레찰은 1931년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해 1948년에 완성했다.

코리엔테스 거리의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백과사전적인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떠올리게 만든다.

- 코리엔테스 거리와 부차드 거리가 만나는 곳에 있는 전설적인 스타디움인 루나 파크는 1934년에 건설되었고, 후안 도밍고 페론은 1944년 어느 날 그 곳에서 산후안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정치 모임에서 에바 페론을 알게 되었다.
- 코리엔테스 거리와 베인티신코 데 마요(25 de mayo) 거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후스텐 호텔(지금은 NH호텔 체인으로 바뀌었다)에서 소위 ‘후스텐 장군들’ 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1943년 군부 쿠데타를 기획해 카스티요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뒤 페론이 화려하게 등극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코리엔테스 거리의 금융 지구(레콩키스타 거리와 플로리다 거리 사이)에 자리한 에이전시들의 문 앞에서 소위 ‘아르볼리토¹¹⁾’ 들은 경제 위기가 닥쳤다고 선언될 때마다 이득을 챙긴다. 식물과 동물의 왕국 사이의 길 중간에 서있는 그 인간나무들의 즐기와 뿌리들에서는 하나의 속삭임이 새어나와 마치 호칭 기도처럼 반복된다. ‘환전, 환전...’ 이라고.
- 코리엔테스 거리에 에스메랄다 거리와 수이파차 거리 사이에 서 있는 극장들에서는 루이 암스트롱, 듀크 엘링턴, 카운트 베시, 디지 길레스피, 사라본, 칩 코리아, 오스카 피티슨, 엘라 피츠제럴드 등의 재즈 거물들이 공연을 가졌다.
- 코리엔테스 거리 1500번지에 산마르틴 극장이 있는데, 극장은 5월 혁명 150주년을 기념해 1960년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현대적인 복합 극장이다.

11) 단어의 원래 뜻은 ‘작은 나무’ 이지만, 거리에서 달리를 사고파는 불법 환전상을 의미하는 아르헨티나 속어.



아바스토 시장에 세워진 전설의 탱고 가수,
카를로스 가르델의 동상

- 코리엔테스 거리 3000번지 조금 더 지나서 도시 전체에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던 아바스토 시장이 있었다. 거기에 모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하는 카를로스 가르델이 살았다. 가르델은 모든 탱고, 여러 스타일의 곡, 밀롱가의 가사에 나오는 ‘n’ 발음을 전부 ‘r’ 발음으로 바꿔 부르는 것으로 유명했다.
- 코리엔테스거리의 4000-5000번지 사이에 있는 알마그로 동네와 비야 크레스포 동네는 지금껏 수백만 명의 익명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인들의 주거지였다. 대체로 그들은 선량한 부르주아였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코리엔테스 거리는 6900번지에서 끝나는데, 거기에는 라차카리타 공동묘지가 있다. 아마도 신은 우리가 그곳에 늦게 도착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묘지 너머로는 트리온비라토¹²⁾ 거리가 시작되는데, 이 삼두정치는 흔히 생각

12) ‘삼두정치’ 라는 뜻.

하듯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파 펠리시아노 치클라나, 후안 호세 파소, 마누엘 데 사라테아 세 명을¹³⁾ 의미한다.

[번역 정승희]

우고 칼리가리스(Hugo Caligaris)는 아르헨티나 《라 나시온》(La Nación)의 기자로 문화 증보판 ADN을 담당하고 있으며, 라우라 리나레스(Laura Linares)는 아르헨티나의 여러 잡지와 일간지의 편집자로 활동하였다.

13) 1811년 9월 23일에서 1812년 10월 8일까지 아르헨티나를 통치했던 첫 번째 삼두정치인 인물들.